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증권 발행
올 두번째… 4,213억원 어치

주택금융공사가 4천213억원에 달하는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발행했다.

14일 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학기에 대출받은 25만여명의 학자금대출 중에서 농협 등 4개 은행이 취급한 13만여건을 기초자산으로 학자금대출증권을 최근 발행했다.

올들어 두번째로 발행한 이번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금리는 만기에 따라 차등화해 1년, 3년, 5년, 10년, 20년의 만기는 각각 4.71%, 4.93%, 5.24%, 5.46%, 5.64%로 결정됐고, 전체 가중평균발행금리는 5.39%다.

만기구조는 1년에서 20년까지 총 8개이고 이중 중장기 5년 이상 만기물이 전체 발행액의 72.3%를 차지하며, 발행조건은 단기인 1~3년 만기물은 만기일시 상환조건이고 5년 이상 만기물은 조기상환에 대비해 콜옵션 조건으로 발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 2학기에도 학자금대출을 기초자산으로 8천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증권을 채권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
콩 종자 파종기까지 공급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소장 신창호)는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콩 종자에 대해 파종기까지 계속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콩 종자는 메주콩인 태광콩과 장원콩이며, 이는 엄밀한 재배관리와 국정검사를 거쳐 생산된 것으로 순도와 발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공급가격은 kg당 2천618원이며 10kg 또는 5kg 단위로 공급하게 된다. 국립종자관리소 홈페이지(www.seed.go.kr) 또는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에 전화(061-323-0702)로 신청할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협기술봉사단 주택 개보수

농협내 전문기술 인력으로 결성된 '농협기술지원봉사단'이 지난 12일 화순군 도암면 도장마을에서 어려운 농가(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낡은 주택을 무료로 개보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정식 농협중앙회 지원기획팀장은 "앞으로 독거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더 많이 확보, 매달 1회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총무팀 임흥빈 (220-7772, 011-714-3487)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최근 5년 광주·전남 신규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승률 살펴보니

광주 56.6% ↑
전남 66.7% ↑

전남은 서울·대구 보다 높아…수요자 고급화 선호

광주·전남지역 신규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최근 5년새 200만원 이상 오르면서 전반적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같은 기간 신규분양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상승률이 각각 56.6%, 66.7%까지 치솟으면서 전국 평균은 물론 부산, 대전 등의 상승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올 1·4분기 신규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각각 588만100원, 499만6천원으로 5년 전인 2002년보다 각각 56.6%(212만원), 66.7%(199만7천800원)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40.3%(203만4천200원)를 비롯 부산 36%(188만3천원), 대전 21%(91만8천원) 등의 상승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서울 62.6%(575만8천원), 대구 61%(266만400원), 인천 54%(254만8천원)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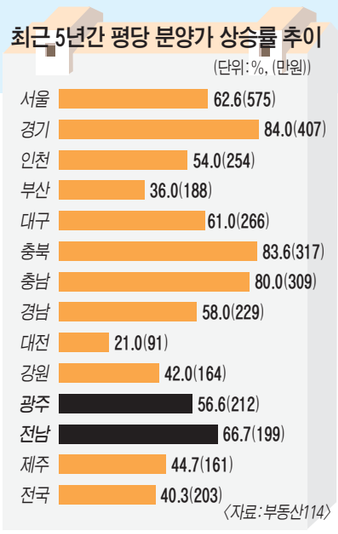
광주의 경우 2002년 평당 분양가가 375만5천원에 그쳤으나 2003년 457만원, 2004년 488만5천원, 2005년 563만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남도 2002년 299만8천원에서 2003년 321만9천원으로 오른 뒤 2005년에는 452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4~5년새 대규모 택지분양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보상금 등 유동자금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택지 개발비 상승으로 인한 지가 급등과 주택 수요자들의 대형평형 선호경향, 신규 아파트의 고급화 추세 등도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 1·4분기 평당 분양가도 지난해 4·4분기보다 각각 4.4%(24만9천700원), 10.5%(47만5천400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1.9%(13만2천원)와 서울 4.3%(62만1천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60%(421만7천원)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충북 42.2%(207만원), 충남 25.6%(14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 -33%(262만8천원), 인천 -9.9%(80만1천원), 대구 -9.7%(76만1천원), 부산 -3.8%(27만9천원) 등은 분양가가 떨어졌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아파트값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며 "최근 확장형 발코니 제공, 녹지공간 확보, 커뮤니티센터 건설 등 아파트 고급화 추세도 분양가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상큼한 여름과일 출시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멜론·수박·복숭아·포도·자두 등 신선한 여름과일을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기업 부설연구소 전국의 2%
신제품 개발 미미… 중기청, 산학협력硏 설치 지원

광주·전남지역 기업체 수는 전국의 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는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광주 144개(전국의 1.4%), 전남 65개(0.6%)였으며 연구원 수는 광주 810명(전국의 1.0%), 전남 410명(0.5%)이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이나 신제품개발이 어려워 매출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등 타 지역과의 기술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 절대적으로 많아 연구소 개설이 어렵고 연구원의 질적 수준도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중소기업들이 지식기반형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내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에 나섰다.

연구소당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전담인력 인건비(석·박사급 3명까지), 시설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전담교수 자문료 등 소요비용의 75%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중소기업이 대학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연구개발인력이 중소기업에 채용될 때까지 연계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성장세
하이쏠라, LED 핵심기술 국산화 성공
엘이디라이텍, 직원 1인당 매출 2억원

한국 광기술원(원장 김태일)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광기술원에 따르면 졸업기업인 ㈜하이쏠라는 최근 고휘도 LED(발광다이오드)의 핵심소재인 사파이어 웨이퍼 국산화에 성공했다.

2002년 2월 경북 구미에서 광주로 본사를 이전한 하이쏠라는 엘지이노텍과 나이넥스 등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만·중국·일본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엘이디라이텍㈜은 광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서 개발한 기술로 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단순한 LED 조명이 아니라 호텔·전시장·영화관 등 고급 인테리어 및 경관조명에 적용되는 시스템 조명을 개발, 직원 1인당 매출실적이 2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포토닉솔루션(통신용 광소자), ㈜싸이럭스(조명용 고출력 LED), 에이치비전자㈜(LED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5개 기업이 보육센터를 졸업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김태일 원장은 "입주기업들은 고가장비를 수시로 쓸 수 있고 고급인력과 공동기술 개발·생산이 용이한데다 유관기관 기술지원과 정보공유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aT 광주·전남지사 수출지원 효과
전남무역 450만달러 계약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신광수)는 신선농산물(채소·과실·화훼) 수출업체의 수출확대 및 수출수요 창출을 위한 해외 우수바이어 수시초청사업을 지원, 13일 순천 심비디움 60만불 수출을 마쳤다.

(주)전남무역(대표 김성환)은 aT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중국의 달리안 그린 심비디움 농장(대표·슈창계) 관계자를 초청, 순천 오키드팜(조광석 대표)과 계약한 첫 선적분을 수출했다.

전남무역은 이번에 초청한 중국 바이어와 5년간 45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90만불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